



서구펜싱팀 신규 선수 위촉 김이강 서구청장은 18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박한빈(남, 22세)을 서구펜싱팀 선수로 신규 위촉하고 앞으로 좋은 경기 보여주길 기대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서구 제공

영광,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 순항

영광군 동계 전지훈련 지원 시스템은 합격점



피지컬테라피. /영광군 제공

전국적 규모의 각종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영광군(군수 강종만)에서는 고등부 축구 스토브리그의 열기가 한창이다.

지난 12월 26일 총 18팀 450명 규모로 26일간의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전국 고등부 축구팀은 팀당 하루 평균 8경기씩을 치르며 접차타마의 마음가짐으로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영광스포티움의 축구 전용구장을 포함한 관내 축구장 5곳에 나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구상해 추진해 왔다.

특히 '송파서울병원'의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들여 쾌적한 마사

지, 근육 테이핑 등의 피지컬 테라피는 훈련 참가 선수들의 피로 회복과 부상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고등부 축구 스토브리그에 참가한 선수 및 감독들은 영광군의 지원에 힘입어 남은 일정을 부상 없이 잘 소화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만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전해 왔다.

고등부 축구 스토브리그는 오는 1월 20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27일부터는 중등부(14팀)와 초등부(16팀) 후배들의 축구 스토브리그가 이어지면서, 겨울철 전지훈련의 열기는 계속될 예정이다.

/영광=서종민 기자

박항서 감독, 베트남 평생 항공권 선물받아

베트남항공 “헌신과 영광·승리에 대한 감사”
박 감독, 당분간 쉬면서 향후 계획 정할 예정

베트남 축구와의 5년 동행을 마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영 항공사인 베트남항공으로부터 한국-베트남 노선 평생 이용권을 선물 받았다. 베트남 방송 VTC는 “박 감독 부부에게 한국과 베트남에 오가는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좌석을 평생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전달했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이어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끈 박 감독의 헌신과 영광,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덧붙였다.

2017년 10월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은 지난 16일 막내인 2022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미쓰비시컵) 준우승으로 5년 동행을 마침표를 찍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아시안게임 4강(2018년), AFF 챔피언십 우승(2018년), 동남아시아(SEA) 게임 축

구 우승(2019년, 2021년), 월드컵 최종예선 첫 진출 등의 성과를 냈다.

또 부임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0위권대였던 베트남을 100위권 이내로 진입시켰다. 지난해 12월 순위는 96위다.

VTC는 “베트남축구협회 박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당분간 쉬면서 향후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박 감독은 미쓰비시컵을 마친 뒤 국내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겠다. 분명한 건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감독 복귀에 선을 그는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유소년 축구와 관련된 제안들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캡처=베트남축구협회 홈페이지

했다. VTC도 “박 감독이 한국에서 휴식을 취한 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베트남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

빙속 박지우, 동계유니버시아드 1500m 금메달 획득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두 번째 금메달...3000m 銀



박지우가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올림픽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3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에서 역주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기대주 박지우(경희사이버대)가 제31회 동계유니버시아드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지우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뉴

욕주 레이크플래시드 올림픽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2분04초41의 트랙레코드를 작성하며 1위를 차지했다.

2분06초19를 기록한 2위 야브지크 나탈리아(폴란드)를 1초78 차로 여유있게 제쳤다.

전날 여자 3000m에서 은메달을 수확한 박지우는 이를 연속 메달 행진을 벌였다.

지난 16일 김민선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이다.

마지막 조인 18조 인코스에서 출발한 박지우는 첫 300m 구간을 전체 5위에 해당하는 27초20으로 통과했다. 700m 지점까지 박지우의 기록도 58초32로 5위였다.

하지만 이후 속도를 올렸다. 1100m 지점까지 박지우의 기록은 1분30초66로 1위였다. 박지우는 이후에도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함께 출전한 강수민(고려대)은 2분07초43으로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 순위 5위에 올라있다.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3개를 탄 일본이 1위를 질주 중이다. /뉴스

민선8기 광양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사 등 임원진 구성



광양시장애인체육회가 3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센터 해설관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갈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결과 보고, 3건의 안건 심의에 대해 의결 승인했다.

또한, 기타 토의에서는 광양시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광양시장애인체육회장인 정인화 광양시장은 “재선임된 박종선 상임부회장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장애인복지증진과 권의 신장에 앞장선 분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장애인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임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